

광주글로벌모터스 이번엔 수백억원대 태양광 입찰 잡음

참가자격 요건 높고 지역자재 사용 규정 없어 '상생형일자리' 무색 '특정업체 염두 입찰 공고' 주장도... 시민단체 '사업 재검토' 성명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막대한 시민 세금을 들여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이번엔 수백억원대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을 놓고 시끄럽다. GGM은 '특정업체를 염두한 사업 공고'라는 업계 반발에 재공고까지 냈지만, 여전히 자격요건이 턱없이 높고 지역자재 사용 규정 조차 없어 '전국 1호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라는 설립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GGM은 광주 시민이 주인인데도, 특정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화 움직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광주시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감시·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에 따르면 GGM은 오는 4월 시운전을 거쳐 9월부터는 10만대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하지만 공장건설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태양광 임대사업 입찰 공고를 놓고는 특정

업체 사전 내정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GGM은 지난해 12월 3일 광주·전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조립공장 지붕 위 4만8540㎡ 면적에 설치용량 3.7MW 규모(200억원 대)의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재공고를 냈는데, 반발을 샀다. 100점 만점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너무 높고, '광주 생산 태양광 패널' 사용 등을 독려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일 시공실적 '10MW 이상'이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광주·전남에서 단 한 곳뿐이다.

GGM은 결국 같은 달 23일 시공실적을 5MW 이상으로 낮추고, 기술인력 보유 평가 항목을 '토목' 한정에서 '토목, 건축' 등으로 단순화해 재공고를 냈다. 업계에선 이마저도 '눈리고 아웅' 식 공고라며, 지난 6일 열린 재공고 현장설명회에 단 2개 업체만 참여하는 등 사실상 '보이콧'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조건을 낮췄다고 하지만, 광주 지역 업체 중 5MW 실적이 있는 업체는 2~3곳에

불과하다"면서 "총 100점 중 임대가격(30점)을 최대한 높게 제시해 30점을 모두 받더라도, 나머지 서류(30점), 제안발표(40점) 항목 곳곳에 특정업체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들러리만 설 계 뻔한 데 누가 (입찰에)참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예로 한국농어촌 공사는 지난해 5월 2840k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입찰공고를 하면서 업체의 자격조건 중 하나로 최근 5년 이내 단위 용량 500KW 이상 준공실적을 제시했다. 전체 건설규모의 18% 수준이다. 반면 GGM은 오히려 사업규모보다 1.3MW를 더한 5MW 이상을 제시했다.

태양광 사업공고는 일반적으로 시공실적이 공사 규모를 넘지 않고, 특히 공공시설은 신규업체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실적을 공사규모의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 사용을 외면한 점도 논란이다. 1차 공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는 한 관계자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면 당연히 지역 내 제작품을 사용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며 "1차 현장설명회에서도 값싼 중국산 패널 대신 지역제품을 사용하도록 가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지만, 재공고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광산구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오는 9월 10만대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조성 중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생산공장 전경.

광주시민사회단체 등도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GGM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기본 취지를 되살려 단독기업이 참여하는 태양광 임대공고를 철회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공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보다 건설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바라는 생각 때문이었으며, 패널과 관련해선 사업자 영역이고 광주에서 업체 2곳이 패널을 생산한다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GGM은 최근 지역업체 외면 논란으로 재공고를 냈던 구내식당 운영자도 대기업군인 삼성웰스토리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GGM측은 "참가자격을 높게 한 것"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김 가공업체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양(주)해조류연구센터를 방문, 현장 소통 간담회를 마치고 김 가공공장인 (주)정풍의 조미김 가공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소방, 18일부터 '장흥 신청사' 시대 개막

22개 시군 재난 1시간 이내 대응

전남소방본부가 장흥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로써 전남소방본부는 도내 22개 시·군의 재난을 1시간 이내 대응할 수 있는 전남도의 명실상부한 육상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게 됐다. 소방본부 신청사는 옛 장흥고도소 부지에 위치해 본부동 4층, 소방서동 2층, 연면적 5000㎡ 규모로 건립됐다.

사업비 168억여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9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준공을 마쳤다. 119신고접수시스템 이전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본부 이전이 마무리 된다.

특히 소방본부부 중심으로 소방학교와 특수구조대, 도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재난대응기관이 한 곳으로 집중됐다. 이로써 소방자원 통합관리가 가능한 소방안전 클러스터가 구축돼 더욱 강화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남소방본부 장흥 이전으로 소방공무원 200여명이 상주 근무하고 소방 관련 민원인 등 유동인구가 연간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지원협의체' 가동

고막원~목포 구간 신속 시공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부터 목포 구간의 신속한 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2일 첫 협의회를 갖는다.

전남도가 주관할 이번 협의체는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경유지인 나주·함평·무안의 건설관련 과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안에 따라 7개 공구의 감리회사도 함께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에서 가질 이번 협의회에

선 사업 시행기관인 철도공단의 현안·애로사항 청취 후 용지보상과 민원사항,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에 대한 지원대책 협의가 이어진다. 공사 초기인 올해 매월 협의회를 갖고, 2022년 이후엔 격월로 진행해 사업완료 시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총 77.8km로, 광주송정부터 나주 고막원 26.4km의 기존선 고속화는 지난 2019년 6월 이뤄졌다. 새로운 철도인 고막원부터 목포 임성까지 44.1km 구간은 7개 공구로 나눠 지난해 말 시공회사를 선정해 착공 중에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공항의 교통접근성이 대폭

확충돼 충남 이남지역은 물론 경남권,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에 신설될 '공항역'도 공항과 동선을 일치시켜 이용자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원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객의 교통편의 개선과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출생육아수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출생축하금,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 육아수당, 24개월 이하 아동에 지급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광주출생육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생축하금과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출생축하금은 2021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육아수당은 1월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부터 지급된다. 출생축하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광주시에

출생신고 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게만 지원된다. 아이가 1월 이후 출생하고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3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수당은 1월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이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광주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

센터에 전입신고 시 별도 육아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된다.

출생육아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1월 대상자는 거주지 등 확인을 통해 2월에 지급된다. 지난 해까지 지급됐던 출생축하금(10만~60만원)과 마더박스(10만원)는 출생축하금(100만원)으로 통합된다. 또 2020년 출생아는 올해 말까지 신고된 건에 한해 지난해 기준으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며, 2022년 1월1일 이후 신고할 경우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영유아병원비(둘째 이상 2년간 100만원)는 육아수당으로 대체돼 2020년 12월 신청자에 한해 올 1월까지 지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재외국민
인문	신학과	13	1	
	한국어교육학과	4		4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15	1	
사범	유아교육과	2		1
예능	음악학부	8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2(화) ~ 25(월)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M.Div.)	26
		성경연구학과(Th.M.)	2
		신학과(Ph.D.)	3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3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3
		신학과(Th.M.)	4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8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6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5
		평생교육학과(M.Ed.)	8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17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30분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3시

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